## 설문조사로 본 충장로 축제

# 주인공 '7080세대' 고작 15% 참여

### 쇼핑비용 1인당 8,978원…매출 도움 안돼

### 주차·숙박시설·휴식공간 미흡 개선 시급

지난해 10월 열린 '제 3회 광주 충장로 축제' 방문객 중 40~50대는 전체의 15%에 불과해 '7080세대를 끌어 모으겠다'는 축제 기획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객 대부분이 젊은층을 차지하면서 소비성향이 유흥비에 편중됐고, 상권 활성화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동구청은 최근 열린 '2006 광주충장로축제 평가보고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축제 당시 방문객 400명과 상인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미만 방문객은 22.4%, 20대는 46.9%로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반면 '7080세대'인 40대는 11.8%, 50대는 3.5%에 불과했다. 동반형태는 '친구 또는 연인'이 68.8%를 차지했으며, '가족과 함께'는 19.1%에 그쳤다.

축제 방문객들의 1인당 소비성향은 유흥비가 9천873원(21.8%)으로 가장 많았고 ▲쇼핑비 8천978원(19.8%) ▲식·음료비 7천757원(17.1%) ▲숙박비 6천766원(14.9%)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충장로 축제 당시 소비성향이 쇼핑비 1만375원(25.2%), 유흥비 6천162원(15.0%)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쇼핑을 장려해 충장로 상권을 되살리자는 축제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우수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 기준은 쇼핑비가 1만4천318원(31.1%), 식·음료비가 1만4천267원(30.1%) 등이고, 유흥비는 5천247원(11.4%)이다.

방문객들이 축제 만족도를 각 항목별로 매긴 점수에서는 '주차편리' 항목이 6점 만점 중 4.11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 '연계관광'(4.21점)·'화장실 시설'(4.48점)·'휴식공간'(4.53점) 등이 비교적 낮은 점수를 얻어 이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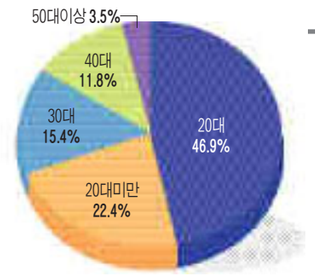
상인들의 축제 만족도에서는 '상가의 매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이 5점 만점 중 3.13점을 획득, 가장 낮았다. 상인들도 충장로 축제가 매출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도시환경 보존노력의 정도'(3.64점)와 '축제 개최지역 경제 활성화'(3.87점) 등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축제 기간 동안 광주가 아닌 타지역에서 온 방문객은 20.6%에 달했지만, 호텔 숙박률은 1.8%에 그쳐 숙박시설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을 한 방문객 중 15.9%는 '친구 및 친지집에서 잤다'고 답했으며, 3.5%는 여관이나 여인숙을 이용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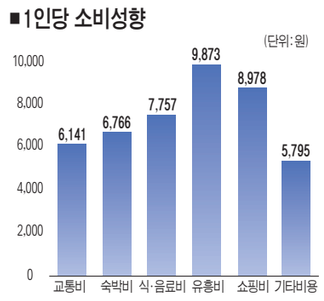
김희승 동신대 관광학부 교수는 "충장로 축제가 기획 의도는 '7080세대를 도심상권으로 불러들이자'였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40~50대의 축제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06 광주충장로축제 연령대 방문객




■1인당 소비성향




■상인들의 축제에 대한 만족도 (6점만점)

## 구청장 새해 청사진

# 광주 생산시설 80% 밀집 환경 조화 '명품구' 만들 것

### 전 갑 길 광산구청장

"광산구를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광주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생산시설의 80%가 밀집된 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다.

전 청장은 올해 역점 시책으로 ▲경쟁력있는 지역경제 기반구축 ▲복지사회 구현 ▲명문 교육도시 조성 ▲자연친화적인 '2탑 2라인' 개발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 등을 꼽았다.

### 산단 136만평 추가 조성

광산구는 이를 위해 평동·하남 등 4개 산업단지에 136만평의 추가단지를 조성, 첨단 소재업체를 유치하고 '공장설립 원스톱 처리제' 도입 등을 통해 관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남도음식 쇼핑거리'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과 송정 5일장 등 재래시장 환경을 현대화한다.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로당, 노인 요양센터 등을 꾸준히 확충하고 장애인 수당도 늘릴 방침이다. 교육 인프라 구축도 올 광산구정의 핵심 분야다. 명문고 유치와 외국어고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출신 인재 육성을 위해 광산장학재단 기금으로 100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다.

어등산과 용진산, 황룡강과 영산강 주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2탑 2라인' 개발 역시 전 구청장이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 어등산에 추진 중인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건설 외에도 왕동저수지와 용진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학습장과 수목원·청소년야영장 설치, 황룡강과 영산강변을 지나는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한다.

### 외국어고 유치 적극 지원

이 밖에도 송정리역 환승주차장 착공, 농산물 판로 확충, 소음피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제1 전투비행단의 이전 등도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전 청장은 "국·시비 3천300억원을 들여 황룡강권은 2010년까지, 어등산권은 2015년까지 환경친화형 테마파크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구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무등산 약수터 13곳 보수키로

### 6,300만원 들여 물 받는 플라스틱통 교체

### 수질 안내판 설치도

광주시는 15일 무등산 약수터 수질을 개선하라는 지적〈본보 2006년 10월 16·18일자, 11월 16일자〉에 따라 올해 너덜겅 약수 등 무등산 약수터 13곳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6천300만원을 들여 너덜겅·평두메 등 표층수인 약수터 9곳의 저류조 플라스틱통을 교체하고,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시민들이 음용 적합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수질성적표 안내간판을 제작·설치할 예정이다. 〈사진〉

시는 이와 함께 지하수인 구 증심사 관리사무소·산장광장·청품쉼터·충장사 약수터 등 4곳은 추경예산을 확보해 자외선 또는 오존을 이용한 살균소독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무등산 약수터는 13곳 모두 지난해 7월, 9월 수질검사에서 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무등산 13개 약수터는 하루 평균 5천여명의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12월말 수질검사에서는 동화사 약수터를 제외한 12곳은 음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빠른 시일내에 저수조 교체 등 보완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북구 교통민원 새청사로 오세요"** 15일부터 중흥동 북구 보건소 뒤편 신축 청사로 이전한 광주 북구청 차량등록 민원실에서 주민들이 차량등록을 하고 있다. 차량등록 민원실은 그 동안 신안동 전남대학교 인근 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했으나 시설이 낡고 주차장·대기실 등이 비좁아 32억원을 들여 새로 지었다. 대지 522평에 연면적 857평, 지상 2층 규모이며 자동차 90대 분의 주차공간을 갖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국체전 범시민 지원단 15만명 모집

광주시는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88회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15만명 규모의 '범시민 지원단'을 모집한다.

지원단에는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광주시민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각급 학교·기관·기업체·동호회·시민사회 단체 등 단체 참여도 환영한다.

희망자는 거주지 구청 및 동사무소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전국체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88sports.gwangj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한은 3월말까지이다.

범시민지원단은 4월부터 체전 종료시까지 활동한다.

활동분야는 ▲친절·질서·청결운동 ▲시가지 청소 ▲숙박·음식 등 접객업소 환경개선 ▲대중교통 친절 이용 ▲도시미관 개선 ▲자원봉사 ▲선수단 환영 및 응원 ▲선수단과 자매결연 등 8개 분야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장서 모읍니다"

### 북구 일곡도서관

일곡도서관(관장 안미영)은 15일부터 도서관 장서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

대상 책은 상태가 양호하고 내용이 건전한 책으로, 50권 이하는 도서관으로 직접 가져오면 되고, 그 이상은 도서관에서 기증자를 방문해 접수한다.

기증된 도서에는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지며, 중복된 도서는 자치도서관으로 옮겨지게 된다.

한편 일곡도서관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천500여명으로 방학 중 독서교실, 무료 영화 상영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062-575-3457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